

# 가족 복지를 위한 독일의 여가·휴가 문화\*

Leisure Time and Vacationing in Germany for Family Welfare

고려대학교 독일문화 연구소  
조교수 최균호\*\*  
연구원 정명순\*\*  
연구원 이문호

German Studies Institute, Korea Univ.  
Assistant Professor: Choi, Kyunho  
Researcher: Jeong, Myeongsoon  
Researcher: Lee, Moonho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가족 여가를 위한 휴가 형태와 휴양지 |
| II.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여가 | V. 결론 및 제언               |
| III. 모성휴양제도와 가족복지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ystem regarding leave of absence in relation to family welfare, which has become a routine in some western countries, in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Those were the relations between reduced working hours and quality of life, maternal recreation, and finally, relations between infrastructure of vacation and culture.

Systematic settlement of reduced working hours and maternal recreation in Germany allowed more time among family members and made large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family welfare in general. Since the stability of society is strongly based on the stability of family, Germany deserved to be case-studied as a good model.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2-BM2544)

\*\* 주저자: 최균호 (khchoi@kornet.net), 정명순 (msnjeong@hanmail.net)

\*\* 교신저자: 최균호 (khchoi@kornet.net), 정명순 (msnjeong@hanmail.net)

The recent tendency shows that Korean workers are starting to spend more time with their own family members than with their colleagues, and, as seen in the case of Germany, the stability of family welfare will improve if various infrastructures for family leisure are properly established in Korea.

Key Words : 가족 복지(family welfare), 여가(family leisure), 휴양(cure)

##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출생과 동시에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가족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기능, 세대유지의 기능,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정서적 지지의 기능 등을 수행해 왔으며 그 자체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하나의 공동체였다 (이영철, 2002).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핵가족의 증대, 가족구조의 단순화, 가족기능의 축소, 부부 권력구조의 평등화, 가족 생활주기상의 변화,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같은 사회변화는 불가피하게 다양한 가족문제들을 발생시켰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새로운 요인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당면 문제에 직면하여 (이영철, 2002; 장인협, 2001), 가족 복지가 위협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가족 내부의 구성원들의 개인적 노력이라는 내적 요소와 더불어, 국가적 제도적 차원의 외적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족 복지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 해결책도 제도나 정책 등의 사회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외적요인은 아주 중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가족 외부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지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독일의 여가 및 휴가 문화와 관련된 제도적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독일의 여가 및 휴가 문화와 관련된 제도적 사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아울러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독일의 여가 및 휴가 문화와 관련된 제도적 사례들을 근로시간 단축, 모성 휴양제도, 그리고 휴가형태와 휴양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해당 근로자 가족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복지는 비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그 부정적 측면이 독일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인 모성휴양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독일의 모성 휴양제도가 가족 복지와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4장에서는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인프라 구조로서 독일의 휴가 형태와 휴양지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 II.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여가

2000년도 OECD가 발표한 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주요 회원국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독일 근로자들이 연평균 1480시간 근무하여 세계에서 가장 짧은 반면, 한국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2474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로, 해당 근로자 가족의 복지에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폴크스바겐사(Volkswagen AG)<sup>1)</sup>의 근로시간 단축사례는, 도입 시 그 전격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잘 드러내주는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독일 근로자에 비해 약 연간 1000시간이나 더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 1. 폴크스바겐사의 새로운 근무제도 도입 배경

1993년은 구서독의 국민소득이 전년 대비 1.9%나 감소하고, 실업자가 전년 대비 50만 명이나 증가하는 전후 최악의 불황의 시기였다 (Statistisches Bundesamt, 1998). 이 같은 불황의 여파로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회

사인 폴크스바겐사는 기업 경영의 위기를 맞이한다. 경영진은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래는 1993년 103,200명이던 근로자의 수를 1994년에는 71,900명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Hartz, 1994).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약 1/3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폴크스바겐사는 인사노무담당 이사인 Peter Hartz의 주도로, 인력 감축 없이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20%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하여 기존의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불황기를 극복하려는 실험적인 시도를 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4년 1월 1일부로 주당 28.8시간 근무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탄력적인 '주 4일 근무제'가 폴크스바겐사에 도입되었다<sup>2)</sup>.

### 2.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생활의 변화

폴크스바겐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일괄적으로 주 36시간에서 주 28.8시간으로 20% 줄고 여가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면, 해당 노동자들의 가족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독일 하노버 대학의 AGIS 연구센터는 1996년 폴크스바겐의 엠덴(Emden) 공장, 하노버(Hannover) 공장, 잘쯔기터(Salzgitter) 공장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면접 조

- 1) 폴크스바겐사는 1993년에 10만여 명의 직원이 연간 자동차 170만대를 생산한 독일 최대의 자동차 제조 회사였다. 현재 옛 서독 지역에 8개의 공장과 구동독 지역에 2개 공장 등 독일 내 10개 공장을 갖고 있으며, 스페인, 벨기에, 브라질, 멕시코, 중국 등 세계 각지에 해외 공장을 갖고 있다 (강수돌, 2001).
- 2) 폴크스바겐사는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통해서 전체 비용의 약 20%인 22억 마르크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996년에는 약 4억 5천만 마르크 그리고 1997년에는 약 9억 마르크의 흑자를 달성하여 약 3만개의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독일 금속노조 부위원장 Jürgen Peters는 만일 당시 3만 명의 인원이 감축되었다면 감원된 사람을 위해 쓰였어야 할 복지비용이 폴크스바겐사를 파산시켰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3만개의 일자리가 보전됨에 따라서 정부도 세금 손실과 실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 23억 마르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Spiegel, 1998년 40호, 1999년 2호, Das Sonntagsblatt 1997년 11월 14일자).

사를 수행하였다<sup>3)</sup>. 조사 결과를 크게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과 현대적인 민주적 가정이라는 두 유형의 가정 형태<sup>4)</sup>로 분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GIS Info Nr. 2, Nr. 5).

### 1)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에서 가장의 근로시간의 단축은 가사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부부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부터 수행했던 성별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가장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부인의 가사노동을 돕는데 쓰지 않는다. 다만 소수의 가정에서 가장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아이와 보내는 시간에 투자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결과 아버지와 자녀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장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자신의 취미와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늘리는데 쓰고 있다. 이러한 가족 유형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여가시간의 증대라는 사실은 가장이 전적으로 누리고 있다. 그러나 가장의 보다 여유로운 삶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보다 좋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하여, 부인들도 결과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제도에 따라 줄어든 근로시간과 늘어난 여가

시간은 부부 양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 2) 현대적인 민주적 가정

현대적인 민주적 가정의 경우 남편은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줄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가사노동과 육아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 이를 통해 부인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부인은 가정 밖의 직업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 결과 부인의 직업 활동이 실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조사된 가정의 대부분에서 새로운 근무시간 단축제도 도입 후 부인은 파트타임으로도 직업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이 새롭게 직업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현상은 다시 남편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결과를 촉진하게 된다. 상호 존중과 평등함을 전제로 성립된 현대적인 민주적 가정에서 가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부부 상호 존중과 평등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서 부부 상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3) 설문 조사는 새로운 근로제도가 도입된 지 약 2년 반 후인 1996년에 실시되었으며, 각 공장마다 아이가 있는 12 부부씩, 총 36쌍의 부부 72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남자들의 나이는 29-41세, 여자들은 26-38세였다. 남자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공장 생산직 노동자이고, 그들의 파트너인 여자 조사대상자들은 반수 이상이 전업주부이거나 육아휴가(Erziehungsurlaub)중이었고, 2명은 폴크스바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16명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동거중인 한 쌍을 제외하고 모두 결혼한 부부였고, 조사대상자는 1-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자녀들의 나이는 6개월-13세 이었다.

4)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은 남편과 부인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는 전통적인 가정을 의미한다. 남자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중심으로 권위를 누리며 직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며, 여자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가장에 복종적인 가정의 형태이다. 남자의 가사노동은 집수리, 정원 가꾸기, 음료수 구매 등과 같은 전형적인 남성의 일에만 국한된다. 반면에 현대적인 민주적 가정이란 남편과 부인의 역할에 분명한 구분이 없고 상호 필요에 따라서 민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의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의 형태에서는 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전통적인 가사노동 구분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가 가사와 육아를 책임질 수도 있다(AGIS Info Nr. 2, 1996).

### 3.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주 28.8시간 근무제에 기반을 둔 폴크스바겐사의 소위 '주4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폴크스바겐사의 근로제도와 관련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1999년 튀네부르크대학 (Universität Lüneburg)의 학생 Kewan Fazel과 Michael Schwarz는 폴크스바겐의 핵심 공장이 있는 볼프스부르크 (Wolfsburg)시<sup>5)</sup>의 통계 자료집에서, 새로운 근로제도가 도입된 이후 볼프스부르크시의 이혼율이 약 60%나 증가하였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고하였다<sup>6)</sup>. 당시 독일의 주요 대중 매체<sup>7)</sup>들은 이 보고서에 주목하여 폴크스바겐의 새로운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였다. 새로운 근로제도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소득이 줄게 되어 이혼율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 당시 대중매체들의 보도 요지였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라서 늘어나게 된 여가시간이 근로자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상에 더 큰 고통만 가져다주었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대중 매체들의 분석은 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Gesterkamp, 2000). 폴크스바겐사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학술적 연구들은 이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1997년 11월 14일자 Das Sonntagsblatt의 보도에 따르면, 1995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폴크스바겐 근로자의 대다수가 새로운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크스바겐사의 새로운 근로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하노버 대학의 AGIS 연구센터의 연구 역시 '주 28.8 시간 근무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호응이 높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비록 초기에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소득 감소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 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호응도는 점점 상승하였다. 그 이유는 우려했던 소득감소는 실질적으로 약 10%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정도의 소득감소는 근로자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었고, 그 대신 가족 및 여가생활에 있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실질소득의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인식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 직장에서의 작업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는 해당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약간의 소득 증가를 위해 가족생활 및 여가생활을 희생하는 추가적인 근무를 할 생각이 없으며,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GIS Info Nr. 2, 1996; AGIS Info Nr. 5, 1997).

지금까지 살펴본 폴크스바겐사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례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표 1>이 보여 주듯이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에 관한 또 다른 연구결과 (Mehlis, Reinecke와 Voss, 2002)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근로시간의 단축이 다양한 삶의 영역, 특히 가족생활과 여가 활동에 아주 긍정적으로

5) 볼프스부르크시는 인구 12만 6000명중 폴크스바겐에서 일하는 사람이 5만 명으로 폴크스바겐의 도시라고 불린다.  
6) 1994년 볼프스부르크에서 이혼한 부부는 294쌍이었으나, 1996년에는 471쌍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새 제도가 도입되기 전 볼프스부르크시에서는 한 해 평균 300쌍 정도가 이혼 했다 (Der Spiegel, Nr. 40, 1998).  
7) 예를 들면, Capital,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Spiegel 등.

작용한다고 평가한다.

### III. 모성휴양 제도와 가족 복지

<표 1>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sup>8)</sup>

	긍정적		부정적		잘 모름	
	응답 자수	%	응답 자수	%	응답 자수	%
가족생활	234	94.4	14	5.6	-	-
부부관계	201	86.3	31	13.3	1	0.4
여가	233	94.0	14	5.6	1	0.4
건강	225	87.9	27	10.5	3	1.2

한국 사회의 경우는 어떠할까? 최근 한국 사회는 사업장 별로 점차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추세이다. 주5일제의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한다면, 한국 사회에서도 근로 단축은 가족 복지의 증진으로 이어질까? 한국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현주, 이창현과 박소라, 2002), 주 5일 근무제 실시 집단이 비실시 집단에 비해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일제 실시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 삶의 질과 가족 관계의 향상을 꼽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에서도 가족 복지를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늘어난 여가시간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족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 3장에서는 독일의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모성휴양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독일의 가족복지 정책은 모성에 대한 보호와 배려에서 시작한다.

“모든 어머니는 공동사회의 보호와 배려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기본법 제 6조 4항을 근거로 하여 1954년 서독의 근로 모성 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이 제정되었다. 이후 개정과 보완을 통해 모성보호법은 더욱 강화된다. 육아와 가사일로 지친 모성에게 제공되는 “모성 휴가”는 심화된 모성보호 정책의 산물이라 하겠다. 가정과 직장, 육아로 인해 지친 모성이 의학적, 심리적인 치료와 쉼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독일의 북해에서 동해, 알프스 산에 이르기까지 100개가 넘는 휴양관이 모성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휴양관은 치료와 쉼을 위한 요양 기관으로 특별히 가족, 여성, 모성의 휴양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무엇보다 모성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1700 개의 복지 단체가 “모성 휴양” 또는 “아이와 함께 하는 모성 휴양”에 대해 상담을 하고 도움을 준다<sup>9)</sup>. 이 기관들은 휴양을 홍보하고 신청 과정에서부터 휴양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휴양이 끝난 후에도 휴양한 모성들과 연락을 취해 휴양의 효과가 일상생활에서 지속되도록 한다. 한 번의 휴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의학적, 심리적 치료와 상담을 계속하여 휴양의 효과를 높이며, 필요한 경우 이 휴양을 4년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

8) 위의 <표 1>은 Mehli, Reinecke와 Voss (2002)에서 인용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의 총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 각 도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카톨릭과 개신교의 여성단체들, 복지 단체들(Diakonisches Werk), “독일 적십자 Deutsches Rotes Kreuz”와 “카리타스 협회 Caritasverband”의 활동이 활발하다. 인터넷으로 “www.muetttergenesungswerk.de”를 통해 정보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년에 10만 명이 넘는 엄마와 아이가 이 휴양을 통해 쉼과 새 힘을 얻고 있다.

### 1. 지친 모성을 일으키는 휴양

모성 휴양은 의료보험회사의 보조로 이루어지는데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휴양의 전 경비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일부분을 보조한다.<sup>10)</sup> 휴양을 위한 신청 조건으로 가정이나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데, 치료를 겸한 휴가가 왜 필요한지, 거주지에서의 치료로는 왜 불충분한지 의사의 해명이 요구된다. 대부분은 심각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나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 이기에 병원치료보다 쉼을 위한 휴양이 요구되는 것이다. 모성복지협회의 위탁 하에 Collatz 박사와 하노버 대학의 Fischer 교수가 연구한 “모성 휴양을 필요로 하는 주된 증상에 대한 지침”은<sup>11)</sup> 휴양을 필요로 하는 엄마와 아이들이 질병으로 인한 것보다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신체적인 장애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모성은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역할과 때로는 상반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치고 병들기 쉽다. 엄마로서, 아내로

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가정에 돌보아야 할 환자가 있을 경우 간병인으로서의 여러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는 모성은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일정하지 않은 근무 시간, 야간 근무, 휴가의 부재, 소음 공해, 직업의 불안정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과중한 부담은 신체적, 정신적, 생체학적인 질병을 낳는다. 휴양에 온 여성들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증상을 살펴보면 심리적, 정신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sup>12)</sup> 지친 모성에게 재충전의 시간과 쉼을 주는 휴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성복지를 위해 일하는 여러 단체들의 홍보와 도움으로 2002년에는 약 50,000의 모성과 68,000 명의 아이들이 예방과 치료적 차원의 휴양을 하였다. 휴양에 참가하는 여성의 나이를 보면 자녀의 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표 2> 휴양에 참가하는 모성의 연령대<sup>13)</sup>

	25세 까지	26-40세	41-45세	46세 이상
아이와 함께하는 모성 휴양	5%	82%	10%	2%
모성 휴양	2%	30%	23%	45.7%
합계	4%	71%	13.7%	10.9%

10) 2004년 1월부터 실시되는 의료개혁은 의료보험사의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휴양자가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데 하루 당 10 유로를 계산하여 3주간의 휴양 동안 220 유로를 엄마는 부담해야하고 아이들은 무료이다.

11) 휴양을 필요로 하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심한 탈진현상, 심적, 신체적으로 우려할 만한 건강 상태, 생체학적인 부담과 이에 따르는 질병, 심신을 다 소모해버린 듯한 증상, 능력의 고갈, 가중한 부담에서 오는 위기 상태, 능력의 장애, 약점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피해를 받는 경우, 아이의 성장과 건강이 장애를 받는 경우, 엄마와 아이의 관계, 혹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경우 (Collatz, Fischer, 1998)

12) 휴양에 온 거의 모든 엄마들이 본인 또는 아이에 대해 다음의 증상들 중 최소한 한 가지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심장-혈액 순환 장애, 위장 장애, 두통, 불면증, 비만이거나 비쩍 마름,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됨, 허리통증, 만성 피로, 의기소침, 불안, 신경질과 두려움 (Müttergenesungswerk, Jahrbuch 2002/2003).

13) 위의 <표 2>는 Datenreport des Müttergenesungswerkes.Forschungsverbund und Prävention und Rehabilitation für Mütter und Kinder der medizinischen Hochschule (2003) Hannover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는 2002년 휴양에 참가한 50,000명의 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다.

위의 <표 2> 에 의하면 휴양을 한 71%의 엄마들은 자녀들이 왕성한 교육기간에 있는 시기로 엄마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받는 때이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비율은 29.4%이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엄마의 비율은 27%인데, 이는 아이의 양육이 모성에게 중요한 일임과 동시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2. 다양한 휴양 시설

북해의 질트 섬에서 알프스 정상에 위치한 마을에 이르기까지 휴양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120개의 휴양관들이 각각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성복지 기관으로부터 인정된 휴양 시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sup>14)</sup>. 휴양관에는 전문의, 사회상담원, 심리상담원, 사회교육학자, 유치원 그리고 학교 선생님, 스포츠 치료사, 간호사, 조리사 등의 전문 인력들이 상주하며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병행하며 무엇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이나 엄마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휴양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둔 엄마는 바닷가에 위치한 휴양관을 선호한다. 취학 전의 아이들을 위한 휴양관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휴양관도 있다. 대부분의 휴양관은 장애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시설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장애아들을 위해 운영되는 휴양관들이

있고, 임산부를 집중적으로 돕는 휴양관들도 있다.

키르쉬베르크에 있는 아델하이트 휴양관은 장애아를 위한 시설이 뛰어나다. 임신한 여성을 위한 휴양시설로는 부란덴부르크주의 부코프에 있는 발트프리트엔 휴양관 (Haus Waldfrieden) 이 대표적이다. 이 휴양관은 아이가 있는 임산부를 위해 특별히 설립된 기관으로 어린 임산부나 나이 많은 임산부, 파트너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임산부, 임신 중 저 체중이나 임신 달에 상응하는 체중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 임산부, 다산의 임산부,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사산아 혹은 미숙아를 낳은 산모들을 위한 휴양기관이다.

여성복지단체에서 2003년 발간한 휴양관에 대한 책자에는 120개의 휴양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실려 있다<sup>15)</sup>. 휴양관 주소, 책임자, 휴양관 주위에 있는 산이나 바다에 대한 정보와 위치, 휴양자들이 사용하게 될 방들에 대한 설명으로 방에 설치된 전화, 베이비 폰, 욕실, 화장실, 발코니 등에 대한 정보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공간들에 대한 정보, 해수욕이 가능한 수영장, 사우나, 독서실 등과 같은 안 내문들도 적혀있다. 몇 명의 모성과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휴양관의 수용 능력, 유치원과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연령이 적혀있으며 놀이방, 유치원의 개장시간, 휴양관의 기후와 지질적인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휴양관에서 엄마와 아이에게 제공되는 치료와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는 어느 휴양관이 자신에게 맞는지

14)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인 치료법과 의료진의 구성, 무엇보다 총체적인 치료에 상응하는 휴양관의 시설과 전문가의 인적 구성이 조사된다. 의료진은 환자 각각에 맞는 치유 계획을 세우며, 이 치료방법은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휴양이 끝날 때는 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결과와 효과를 문서로 남겨야한다. 이에 대한 평가와 조사는 하노버 의과대학, 프라이부르크 대학 병원의 사회의학팀과 함께 이루어진다 (Müttergenesungswerk, Jahrbuch 2002/2003).

15) 101개의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의 휴양을 위한 시설과 19개의 모성 휴양을 위한 시설이 독일 전역에 걸쳐 있다.



선택할 때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 3. 휴양지에서의 자녀 교육

한 달에 가까운 휴양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의 긴 공백을 의미한다. 아이의 학교 때문에 모성의 휴가가 포기되지 않도록 휴양관에서도 학교 교육은 계속된다. 전문 교사들이 학교 교과내용과 진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므로 아이들은 휴양지에서도 학교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영아들을 위한 놀이방과 유치원은 엄마가 아이로 인해 휴가를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오늘날 아이들도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어른들 못지않게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악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한 연령일수록 아이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없어서 공격적이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그 요인을 해소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의 과중한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고, 편식과 운동 부족, 여가 시간의 부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으며 컴퓨터와 오락게임에 매달리느라 정서적으로도 불안하다. 가족 간의 불화, 가정 파탄과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공부에 대한 부담과 부모들의 기대치는 아이들을 더욱 압박한다. 이런 부담은 치료를 요할 정도로 아이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크게 억압하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도움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나중엔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휴양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루어지기에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공부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든 아이들, 사회생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또 다혈질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상담 심리학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된다.

### 4. 가족애의 회복과 심화

가정과 직장을 떠난 휴양지에서의 일상은 아이에게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받는 치료들, 수영, 가족이 함께하는 오일 목욕, 운동, 율동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엄마와 아이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기회들을 제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정이 깊어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휴양에 대해 연구한 하노버 의과 대학 팀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사회의학(Sozialmedizin) 팀은 휴양자의 심리 사회학적,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상태는 휴양 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데 의견을 일치한다. 정신적, 심리적인 질병에서는 46, 6%의 경우에 “높은” 치료 효과, 15, 7%에서는 “매우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휴양자 스스로도 휴양 후 심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한다. 휴양이 끝난 6개월 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던 수치도 떨어졌고, 의사를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아이들에게서도 휴양의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휴양이후 반년 사이에 질병에 감염된 수치를 보면 4,1에서 2,5로 감소했음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들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아졌다.

선진국들이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이유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기 때문일 것이다. 모성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가정이 밝고 활기차다. 가정과 직장 일로 지친 모성에게 보험회사의 보조로 치료를 병행하는 휴가 “모성휴양”은 엄마의 심신을 회복시킴으로 가정과 더 나아가 사회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휴양은 일과 육아에 지친 모성, 그리고 소원화된 가족관계, 가족의 해체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친 모성에게 쉼과 활기를 줌으로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과 사교육으로 인해 지치고 병든 아이들, 가정과 아이들 양육, 직장 일로 시달리고 지친 모성에게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휴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입장에서 지친 모성에게 힘을 주고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성의 휴양”은 가족 친화적 복지 정책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기점이라 하겠다. 교육문제와 부부문제 등으로 가족 간의 유대가 깨지고 많은 가정이 해체의 위기에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휴양에서 제공되는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은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가족 여가를 위한 휴가 형태와 휴양지

독일에서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가족들이 1995년 대략 독일 전체 인구의 42.8%를 차지하며, 전체 여행인구의 3분의 1이 가족형태의 여행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여행을 제공하는 주체들에게도 가족여행은 가장

크고 중요한 대상그룹이 되어왔고, 가족을 대상으로 삼는 휴양시설이나 숙박시설 역시 계속 증가되어 왔다.

##### 1. 가족휴양지 인프라의 확대

가족휴양지들은 거의 대부분 경관이 아름다운 휴양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특별히 가족 휴양시설을 위해서는 가족에게 친화적인 여가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조건이어야 한다<sup>16)</sup>. 그래서 그러한 휴양지들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공동의 시설 놀이시설이나 스포츠 시설과 같은 가족친화적인 시설들이 제공되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의 시설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1986년에서 1994년까지 독일 정부에 의해 실시된 ‘독일에서의 가족휴가’라는 시상은 여러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들을 특성화시키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이 시상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들과 훌륭한 경험들이 축적되었으며 새로운 생각들이 실현되도록 고무되었다. 또한 오늘날의 가족 구조, 즉 이혼의 증가와 외딴 가족의 증가 또는 연령층의 다양화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정부는 가족정책과제로서 많은 아이를 가진 가족이나 수입이 적은 가족 그리고 외딴 가족이나 장애 아이를 가진 가족을 위한 휴가지나 시설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가족, 노인, 부인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정부부서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 und Jugend)가 지원하고 ADAC(독일자동차 클럽)<sup>17)</sup>에서 발행하는

16) Hahn, Kagelmann(1993)에 따르면 가족단위로 휴가를 지내고 온 구성원들에게 설문을 통해 만족도 7단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아주 만족하다(7단계) 42.5%, 6단계 29.9%, 5단계를 17.2%를 선택했고, 겨우 10.3%가 1-4단계의 평균이하의 불만족도를 나타냈다.

‘독일에서의 가족휴가(Familienferien in Deutschland)’라는 잡지는 제공하고 있다.

## 2. 가족 휴가 형태

가족을 위한 여가의 형태로서 독일에서 제도적으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실현한 두 가지 모델, 즉 ‘농가에서의 휴가’와 ‘생태휴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이 두 가지 가족 친화적 휴가형태는 대규모 여행(Massentourismus)과는 반대로 정의되며 부드러운 여행(Sanfter Tourismus), 녹색여행(Grüner Tourismus), 농촌여행(Agartourismus) 등의 정의들과 함께 농촌 지역에서의 여행에 속한다(Voet, Kloeze, 1997).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여행형태이다.

### 1) 농가에서의 휴가

우선 농가에서의 휴가(Urlaub auf dem Bauernhof)는 한마디로 ‘농촌지역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본래는 효과적인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수단으로 적극 권장되었으며 도시사람들이 농촌의 가정에 숙박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그 지역사람들과 교류하며 전원경관을 즐기는 등의 여가활동을 말한다.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자원을 관광물로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소득증대와 농촌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그 목표였으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투자로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농어촌개발을 촉발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독일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이러한 농가에서의 휴가를 육성하는 전국적인 조

직이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휴가를 원하는 사람들도 농가에서의 휴가를 즐기고 있으며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독일에서 이러한 휴가 형태는 독일정부의 ‘농촌구조와 해안보호지의 개선’이라는 공동체 개선이라는 과제의 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에서의 관광에 대한 요구들이 가능해졌다. 차후 이러한 계획을 통해 농어촌이 직접 기획하며 여가와 휴양 그리고 가계와 농촌의 이용이라는 농업투자혁신프로그램(AFP)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건강, 농업과 산림에 관한 관청들이 이 휴가형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체독일지역 내의 휴가지들에 대한 평가기준들을 마련하고 분류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로써 농가에서의 휴가 형태를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휴양지의 내용을 투명하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여가시설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고, 시설 제공자들에게는 평가라는 수단을 통해 경쟁을 시킴으로써 질의 향상을 유도하였다(Beratung der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Tourismus, Deutscher Bundestag - 13, 1999)

이를 통해 1997년 한 해 동안 약 20000개 정도의 농가에서의 휴양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숙박한 인원만도 23,800,000명 정도나 되고 이를 통해 약 9억 5천 2백만 마르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712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셈이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성사시켜낸 바 있다. 2003년에는 2만 가구 이상의 농가들이 이 휴가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 10년 동안 관

17) Allgemeiner Deutscher Automobil-Club이라는 이 클럽은 독일의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로서, 거의 모든 자동차 소유자들이 이 클럽의 긴급구난이나 여행 중 긴급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모든 자동차에 관한 시험 및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농가에서 묵은 숙박일도 약 1200만 일에서 2700만 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1년 1월에 있었던 ‘농가 휴가를 위한 제 2차 유럽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의장은 “농가 생산이 가진 현재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미래에 농가 소득을 위한 또 다른 선택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Pressemitteilung von Deutscher Bundestag, 2001). 이는 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농어촌 지역에 미래제시적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농가에서 휴가가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휴가의 형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간 사이의 진정성을 경험하고 맛보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에게 농가의 휴가의 형태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는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농가에서 단순히 관광객으로서 만이 아닌 또 다른 가족이 되며 단순한 농가의 일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자연과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증대와 깨끗한 관광자원의 질 유지는 물론 가족 체험을 목표로 하는 관광객들을 만족시키는 이른 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되었다.

## 2) 생태휴가와 가족 친화적 휴가형태

또 하나의 가족 친화적 휴가형태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모델을 결합, 발전시킨 생태휴가 모델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리는 일찍이 1988년 WTO에 의해 정의되었다. 지속가

능한 관광은 “문화적 순수성, 필수적인 생태과정, 생물다양성, 생명부양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자원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www.unesco.or.kr/kor/unesco/day\_year\_2002\_1.html). 본래 생태관광에서 발전해온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은 생태관광이 가진 제한적 한계를 지속가능한 대안 형태를 포함하여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모든 형태의 관광 활동, 운영, 설립,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가족여가에 잘 적용시킨 모델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독일의 갯벌 국립공원 오스트프리스란드 안에 있는 작은 섬, 스피커룩 (Spiekeroog)의 사례에서 잘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함께 세계 5대 해안습지 중 하나인 북대서양 연안의 갯벌지대는 거대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그중 독일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니더작센 주 그리고 함부르크 시의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독일의 갯벌은 세계에서 유일한 갯벌국립공원이다. 그 중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니더작센 주의 국립공원 오스트프리스란드 지역은 7개의 섬<sup>18)</sup>과 그에 접한 해안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다 철저한 관리와 보존 그리고 자연자원에 대한 계획적인 이용을 통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모델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효과들이 일방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갯벌의 지역적 특성과 자연적 내용에 맞게 일곱 개의 섬 주민 공동체들은 협상을 통해 여행객 수

18) Ostfriesland는 서쪽에서부터 Borkum, Juist, Norderney, Baltrum, Langeroog, Spiekeroog, Wangerooge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립공원의 조례에 따라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보호되고 이용된다. 1구역은 보호지역으로서 전체 국립공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지역이며 주로 내부갯벌에 해당된다. 이곳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절대 금지되어있으며, 학술적인 조사를 위해서도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2구역은 약 39%정도를 차지하며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해있으며, 제한된 길이나 표시에 따라서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태적 과정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3구역은 휴가를 찾는 사람들이 머물고 즐기는 지역으로서 모두 합하여 약 1% 미만 정도이다. 그것도 대규모 휴양지가 아니며 공원 전 지역에 걸쳐 분산배치 되어있다.

를 유도하였다. 이 곳 갯벌 국립공원의 작은 섬 슈피커록은 우리의 논의와 관계하여 가족 휴양지로서 개발에 성공한 본보기로서 우리의 현실에 중요한 모델이 될 만하다.

이 섬은 경관이나 주민들의 수 그리고 자연환경 면에서 가장 전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60년대 70년대 관광의 붐이 형성되던 시기에도 그들에 의해 훼손이 가장 덜 된 곳이기도 하였다. 이 섬의 그러한 특색을 살려 슈피커록은 국립공원이 되고 난 이후 자연을 보호하고 조용한 휴가를 즐기려는 휴양지로서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나 50세 이상의 여행객들을 위한 휴양지로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휴양지로서의 이미지와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는 요양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고 이러한 인프라요소들을 확대해 나아갔다.

그에 반하여 소란스러운 휴양지의 시설들 예를 들어 오락실이나 디스코텍과 같은 시설들을 건립하거나 그러한 관광객의 유치는 포기하였다. 이러한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를 통해 자연에 친숙하고 휴식을 취하길 원하는 그런 여행객들이나 특별히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교회공동체나 아이들의 휴양지 역할로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그밖에도 다른 섬과는 달리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않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 슈피커록 섬이 가진 특색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을 통해 1996년 주민 수가 7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섬에 찾아온 방문객은 무려 6만 여명이나 되며, 이들이 숙박한 날의 횡수도 약 544,000 일을 넘는 성공을 거두었다 (Buchwald, 1998). 여행객과 관련된 일자리의 수도 많아져 성공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였다. 이처럼 친환경적인 개발과 가족을 위한 휴가지 구성에 성공

한 슈피커록 섬의 예는 우리에게 가족휴가를 위한 또 다른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농가에서의 휴가와 생태휴가와 같은 휴가 형태를 가족친화적인 구상에서 인프라를 형성하고 성공한 독일의 사례는 아직 가족만을 위한 휴가지나 휴가 형태가 개발 되지 못한 한국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속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휴가 형태와 휴가지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래를 보장하는 이상적인 사회모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휴가 형태를 위한 인프라의 확대는 결국 가족복지를 증진 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독일의 여가 및 휴가 문화와 관련된 앞선 사례 연구를 통해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 모성 휴양제도, 그리고 휴양지 조성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가족의 해체, 가족의 위기라는 말들이 오가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 유대를 돕는 제도적인 복지 정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아울러 2002년 7월 이후 금융부문을 시작으로 실시된 주 5일 근무제와 2006년부터 월 2회 실시되는 주 5일 수업제의 확산은 가족 복지를 위한 여가와 휴가 문화에 대한 정책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한다. 2003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여가시간은 휴식하는 시간, 기분전환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 (relaxation), 가족, 친구 및 아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 (communication) 또한 취미, 스포츠, 자연 등과 함께 즐기는 시간 (enjoyment), 뿐만 아니라 건강유지나 체력 증진 등 자기개발, 자기투자를 위한 시간 (self-enlightenment)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약 45%의 응답자는 이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sup>19)</sup> 이런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여가시간을 가족을 위해 활용하려는 변화된 여가문화 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우리의 현실상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은 가족 모두의 휴일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서 언급된 독일의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우선 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직장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비용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가족 공동의 여가문화를 정착하는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사회적 안정을 위한 필요한 요소인 가정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모성 휴양지 운영과 같은 환경의 조성은 가족의 복지 증진은 물론이고,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모델로 제시된 가족친화적인 휴양지 조성구축 역시 가족 여가 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환경문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휴가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소득 증진을 가능케 하는 일석 삼조의 해결책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내에서 점증되는 가족여가 수요를 위한 기반시설과 인프라의 확대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역시 독일지역에서 성공했던 이러한 모델들이 보여주는 장점들을 적극 도입한다면 보다 생산적인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미 제도적, 사회적 체계가 일정하게 완비된 독일과 달리 우리의 경우 여가문화의 가족 중심 형태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논의와

준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복지선진국 독일의 예를 통해 국내에서의 이러한 논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후기자본주의의 경쟁의 논리에서 더욱 문제제되고 있는 반가족적 사회분위기와 문화에 대해 여가제도와 문화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통해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제시적 대안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수돌(2001). 독일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 유지 대책. 산업연구원 정책 보고서 2001, 61-108.
- 2) 김현주, 이창현, 박소라(2002).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말 여가 문화 이용 형태 변화. 설문 조사를 통한 실시 집단과 비실시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 1회 여가, 문화학회 포럼 자료집. 24-37.
- 3) 안순이(2003). 리조트마케팅전략. 여행학연구.
- 4) 이영철(2002). 사회복지학. 서울: 양서원.
- 5) 장인협(2001). 사회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6) 한국 레저산업연구소(2003). 레저산업개황. 3. 재인용. <http://www.k.dongguk.ac.kr/~sty/data/clubmed.doc>, 해외 리조트 산업의 마케팅 전략 분석, Club Med 사례를 중심으로.
- 7) AGIS Info Nr. 2(1996). Ms. Universität Hannover.
- 8) AGIS Info Nr. 5(1997). Ms. Universität Hannover.
- 9) Buchwald, Konrad(1998). Naturschutz und Tourismus

19) 안순이(2003). 리조트마케팅전략, 여행학연구.

- im Nationalpark, "Niedersächsisches Wattenmeer"  
- Problematik, Konfliktlösungen: Zukunftsgefährdung,  
in: Konrad/Engelhardt, Wolfgang (Hg.): Umwe  
ltschutz-Grundlagen und Praxis. Freizeit, Touris  
mus und Umwelt, Bonn. 194-222.
- 10) Beratung der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Tourismus, Deutscher Bundestag - 13 (1999).  
Wahlperiode, Drucksache 13/10824.
- 11) Collatz und Fischer(1998), Expertise zur Entwicklung  
einer leitsymptomorientierten Indikationsstellung  
für Mütter- und Mutter- Kind Kuren.
- 12) Das Sonntagsblatt, 1997년 11월 14일
- 13) Datenreport des Müttergenesungswerkes. For  
schungsverbund und Prävention und Re  
habilitation für Mütter und Kinder der medi  
zinischen Hochschule(2003). Ms. Hannover.
- 14) Der Spiegel Nr. 40, 1998.
- 15) Der Spiegel Nr. 2, 1999.
- 16) Gesterkamp, Th.(2000). Kürzer Arbeiten bei  
VW. Auf den Geschmack gekommen. In:  
Junge Welt (2000. 06. 28.).
- 17) Hahn, H./Kagelmann, H.-J.(Hrsg.)(1993) Touris  
muspshologie und Tourismussoziologie. Ein  
Handbuch zur Tourismuswissenschaft, München,  
375.
- 18) Hartz, P.(1994). Jeder Arbeitsplatz hat ein  
Gesicht: Die Volkswagenlösung. Frankfurt  
a.M./New York, 19.
- 19) Mehliis, P./Reinecke, K./Voss, M.(2002). Neue  
Arbeitsplätze, mehr Lebensqualität durch  
freiwillige Arbeitszeitverkürzung. Ms. Hannover.
- 20) Müttergenesungswerk, Jahrbuch 2002/2003.  
Elly Heuss Knapp Stiftung(2002), 12-16.
- 21) Pressemitteilung von Deutscher Bundestag.  
2001. 1. 17.
- 22) Statistisches Bundesamt(1998). Erste Ergebnisse  
der Inlandsproduktberechnung.
- 23) Voet, Johannes L. M van der/ Kloeze, Jan  
W.(1997). Tourismus auf dem Lande, nicht  
nur Urlaub auf dem Bauernhof, in: Jörg  
Köhn(Hrsg.). Tourismus und Umwelt, 99- 114.
- 24) [www.muettergenesungswerk.de](http://www.muettergenesungswerk.de)
- 25) [www.unesco.or.kr/kor/unesco/day\\_year\\_2002\\_1.  
html](http://www.unesco.or.kr/kor/unesco/day_year_2002_1.html)

---

(2006년 1월 15일 접수, 2006년 2월 24일 채택)